강희(康熙) 말년의 학술과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리우샹춘(柳向春) **

1

방대한 전제국가의 통치자였던 강희제의 말 한 마디와 일거수일투족은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 전체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른바 "윗사람이 어떤 일을 좋아하면, 아랫사람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上有好者, 下必甚焉)"는 말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다. 프랑스 선교사 부베(J. Bouvet, 1656~1730)는 이렇게 말했다.[1] "지금 강희제는 찬란한 문화를 부흥시키기를 갈망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각종 학문을 중시하는 데에 착수하는 것이다. 강희제가 중국 내에서 다시금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라 자신이 통치하는 시대가 태평 성세를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학문과 예술을 탐구함으로써 만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이고, 더불어 이러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것 외에는 좋은 방책이 없다."

부베의 말은 그럴 듯하지만 사실 실지로는 그렇지 않은 면이 다소 있다. 사실상, 강희제의 학술 방면에 대한 취향은 시종일관 국가 전체에 완전히 파급되었던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백성들의 나태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강희제 자신의 의도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는 편이 낫다.[2] 어린 나이에 제위를 이어받은

*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푸단대학(復旦大學) 도서관 고적부(古籍部) 부연구원 후이쥔(眭駿) 박사께서 여러 차례 자료 조사와 관련 문건 전달을 대신하여 주셨고, 또한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역사과 박사 예비자 치아오즈용(喬志勇) 선생, 푸단대학 고적소(古籍所) 부교수 리충핑(李忠平) 박사, 샤먼대학(廈門大學) 역사과 부교수 리즈쥔(李智君) 박사께서 다방면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기에 특별히 여기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역주: 원제는 "康熙末年的学术与『古今图书集成』"이다.)

** 중국 상해박물관 연구원.

1) 趙晨譯, 1981『康熙皇帝』, 黑龍江人民出版社, 39면.

강희제는 근면하고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관심 분야가 광범위하고 천부적 재능도 훌륭하였기 때문에 그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기본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의도적으로 유포 범위를 제한한 대상은 결코 일반적으로 애호하는 학문 분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두 당시에 유입된 서학(西學)과 관련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이처럼 지식의 전파를 제한하고자 했던 까닭은 아마도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서학중원설(西學中源說)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3] 이 점에 대해서는 그가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그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4]

"『서경(書經)』이라는 책은 우(虞)·하(夏)·상(商)·주(周)가 천하를 다스린 큰 법이다. 『서전(書傳)』의 서문에서 이제삼왕(二帝三王)의 다스림은 도(道)에 근원을 두고, 도란 마음에 근원을 두니, 그 마음을 얻으면 진실로 도와 다스림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대개 도심(道心)이 인심(人心)의 주인이요, 심법(心法)이 치법(治法)의

2) 프랑스 선교사 가빌롱(Jean Franois Gerbillon: 張誠, 1654~1707)의 『장성일기(張誠日記)』에서 "그(강희제)가 우리에게 훈계하기를, 우리의 과학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는 관청에서는 번역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집에서만 하라고 하셨다."고 한 것을 참고하였다.(張誠著·陳霞飛譯, 1973 『張誠日記』, 商務印書館, 72면). 또한, 한기(韓琦)의 글에 따르면 강희제는 프랑스 선교사 안토이네 앙투안 토마스(Antoine Thomas: 安多, 1644~1709)에게도 유사한 지시를 하였다.(韓琦, 2003 「康熙時代的數學教育及其社會背景」 『法國漢學』제8집 "教育史專號", 中華書局, 434~448면 참고). 마찬가지로, 강희제는 일찍이 『성조인황제정훈격언(聖祖仁皇帝庭訓格言)』(雍正六年內府刻本)에서 과시하며 "짐이 시험해본 약과 사람의 병을 낫게 한 처방을 반드시 많은 백성들에게 깨우쳐 알려라. 혹 각지에서 얻은 처방이 있으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알려 줄 테니 함께 기록하여 오로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를 도모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선교사 파레닌(Dominique Parrenin: 巴多明, 1665~1741)에 대해서는 그가 전수한 서양 해부학 등 선진 의학지식에 관해 "이것은 특이한 책으로, 보통의 문헌과 동등하게 볼 수 없으며, 또한 학문과 기술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 책을 함부로 읽도록 해서는 안 된다(此乃特異之書, 不可與普通文籍等量觀之, 亦不可任一般不學無術之輩濫讀此書.)"고 여겼다.(潘吉星, 1984 「康熙與西方科學」 『自然科學史研究』제3권 제2기, 184면에서 재인용).

3) 청대에 서학중원설(西學中源說)이 발생하여 유포된 것과 관련하여 江曉源·鈕衛星, 2001 「試論清代"西學中源"說」 『天文西學東漸集』, 上海書店出版社, 175-387면을 참고할 수 있다. 물론, 율력(律曆)이나 지도와 같은 부류의 학문은 황권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파의 측면에 있어서 각별한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오히려 강희제 후대 자손들에게서도 그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것은 또한 역으로 강희제 시대에 나타난 이러한 면모는 강희제가 또 다른 원인에서 고의로 추진하여 이루어진 결과임을 증명한다.

4) 『聖祖仁皇帝庭訓格言』 "《書經》者, 虞夏商周治天下之大法也. 《書傳》序云, 二帝三王之治本於道, 二帝三王之道本於心, 得其心, 則道與治固可得而言矣. 蓋道心爲人心之主, 而心法爲治法之原, 精一執中者, 堯舜禹相授之心法也. 建中建極者,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 德也仁也, 敬與誠也, 言雖殊而理則一, 所以明此心之微妙也, 帝王之家, 所必當講讀. 故朕訓教汝曹, 皆令誦習. 然《書》雖以道政事, 而上而天道, 下而地理, 中而人事, 無不備於其間, 實所謂貫三才而亘萬古者也. 言乎天道, 《虞書》之治歷明時可驗也 ; 言乎地理, 《禹貢》之山川田賦可考也 ; 言乎君道, 則典謨訓誥之微言可詳也 ; 言乎臣道, 則都俞吁咈、告誡敷陳之忠誠可見也 ; 言乎理數, 則箕子《洪範》之九疇可敘也 ; 言乎修德立功, 則六府三事、禮樂兵農歷歷可擧也. 然則帝王之家, 固必當講讀, 即仕宦人家有志於事君治民之責者, 亦必當講讀. 《孟子》曰, 欲爲君, 盡君道. 欲爲臣, 盡臣道. 二者皆法堯舜而已矣. 在大賢希聖之心言必稱堯舜, 朕則兢業自勉, 惟思體諸身心, 措諸政治, 勿負乎天佑下民、作君作師之意已耳."

근원이며, 정일집중(精一執中)은 요(堯) · 순(舜) · 우(禹)가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으로,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움은 상(商)의 탕왕(湯王)과 주(周)의 무왕(武王)이 전수한 심법(心法)이고, 덕(德)과 인(仁), 경(敬)과 성(誠)이 말은 비록 다르나 이치는 같아서 모두 이 마음의 미묘함을 밝히는 방법이라 하였으니, 제왕의 집안에서 마땅히 강독해야 할 바이다. 따라서 짐이 너희들에게 훈교하여 모두 송습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서경』이 비록 정사(政事)를 말한 것이긴 하지만 위로는 천도(天道), 아래로는 지리(地理),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는 인사(人事)에 있어 그 안에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진실로 이른바 삼재(三才)를 관통하고 만고에 걸쳐 있는 것이다. 천도에 대해 말하자면 「우서(虞書)」에서 책력을 다스리고 때를 밝힌 것으로 증험할 수 있고, 지리에 대해 말하자면 「우공(禹貢)」의 산천과 전부(田賦)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으며, 군도(君道)에 대해 말하자면 「요전(堯典)」 · 「대우모(大禹謨)」 · 「이훈(伊訓)」 · 「탕고(湯誥)」의 미언(微言)에서 상세히 알 수 있고, 신도(臣道)에 대해 말하자면 임금과 신하의 기탄없는 토론[都俞吁咈]과 임금 앞에 아뢴 말들[告誠敷陳]에 드러난 충성에서 볼 수 있으며, 이수(理數)에 대해 말하자면, 기자(箕子)의 「홍범(洪範)」 구주(九疇)를 가지고 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덕을 닦고 공을 세운 일에 대해 말하자면, 육부삼사(六府三事)와 예(樂) · 병(兵) · 농(農) · 역(曆)을 다룬 것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즉, 제왕의 집안에서 진실로 마땅히 강독해야 하며, 신하의 집안 가운데 군주를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에 뜻이 있는 자들 역시 마땅히 강독해야 한다. 『맹자(孟子)』에서 말하길, 군주가 되고자 하면 군주의 도를 다해야 하고, 신하가 되고자 하면 신하의 도를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가지는 모두 요 · 순을 본받는 것일 따름이다. 큰 현자가 성인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말할 때마다 반드시 요 · 순을 말하니, 짐은 삼가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힘써 오직 그것을 몸과 마음에 체현하고 정치에 응용할 것만을 생각하고 하늘이 백성들을 보우하시어 군주를 세우고 스승을 세운 의미를 저버리지 않을 따름이다."

즉, 천(天) · 지(地) · 군(君) · 신(臣) · 리(理) 및 덕(德)과 공(功)은 모두 유가 경전인 『서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성이 중국의 고유한 경전을 진정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공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니, 또 하필이면 서양에서 전래된 하찮고 얄팍한 지식에서 그것을 구하겠는가?

강희제가 섭렵한 서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였는데, 그는 일찍이 천문학 · 수학 · 지리학 · 의학 · 측량학 · 음악 · 논리학 등의 방면의 지식에 대해 모두 중시하고 더 많이 학습하였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학문적 성취를 얻은 것은 다만 천문 ·

수학·지리 등 몇 가지 방면에서 뿐이었다.[5] 그러나 그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이러한 몇 가지 학문에 있어서조차 그는 역시 그의 흥미를 국가 전체의 백성들에게 확대시킨 적이 없으며, 다만 이러한 지식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시비를 판별하거나 고급 한인(漢人) 관리를 감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았을 따름이었다.[6]

이 때문에 서학이 비록 일찍이 조정의 위아래로 일시에 극성하였지만, 시종 국가 전체의 백성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져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7] 미국의 조나단 스펜스(Jonathan D. Spence, 1936~)가 그의 『강희제(Emperor of China: Self-Portrait of K'ang-Hsi)』에서 "역사를 쓰는 사람은 대신(大臣)이다. 그러나 서술된 본조의 역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황제이다."[8]라고 한 것과 같이, 지식 전파에 있어서의 이러한 한계는 물론 강희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

5) 강희제 자신 역시 "짐은 일찍이 산법·천문·지리를 익혀 자세히 궁구하지 않은 바가 없다(朕嘗習算法, 天文, 理, 靡不詳究)"고 한 적이 있다.(『聖祖仁皇帝聖訓』권5, 康熙四十九年三月己巳, 文淵閣 『四庫全書』本) 또한, "짐은 지리에 대해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져 고금의 산천의 명칭에 있어 변경 지역이든 오랑캐가 사는 곳이든 막론하고, 반드시 그림과 책에서 상고하고 방언을 널리 조사하여 그 정확함을 구하는 데에 힘썼다(朕於地理, 從幼留心, 凡古今山川名號, 無論邊徼遐荒, 必詳考圖籍, 廣詢方言, 務得其正)"고 하기도 했다.(『聖祖仁皇帝聖訓』권52, 康熙五十九年十一月辛巳)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다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일 뿐이고, 사실상 이탈리아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파(Matteo Ripa: 馬國賢, 1682~1745)는 "황제는 자신이 대음악가이자 동시에 그보다 더욱 훌륭한 수학가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가 과학 및 기타 일반 지식에 있어 가졌던 흥미가 모두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음악에 대해서는 의외로 아무것도 몰랐으며, 수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또한 아는 바가 매우 적다"고 여겼다.(馬國賢(李天綱 譯), 2004 『清廷十三年:馬國賢在華回憶錄』第十一章, 『域外漢學名著譯叢』本, 上海古籍出版社, 56면).

6)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 강희제가 산술을 학습한 까닭을 자술한 것을 인용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으며, (『聖祖仁皇帝庭訓格言』제181조 참고) 이외에도 또한 웅사리(熊賜履)·이광지(李光地) 등의 인물들의 경력을 참고할 수 있다. 李光地, 『榕村續語錄』권17 "理氣" 가운데 웅사리와 관련된 한 조항(陳祖武 點校, 1995 『理學叢書』本, 中華書局, 814-815면) ; 韓琦, 『君主和布衣之間 : 李光地在康熙時代的活動及其對科學的影響』(대만 『清華學報』新26卷 第4期, 1996年12月, 421-445면) 참고.

7) 이는 어쩌면 강희제의 정치 이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일찍이 "군주의 도는 그 요체가 안정에 있으니, 반드시 기이한 것을 숭상할 필요는 없다(爲君之道, 要在安靜, 不必矜奇立異)"고 하였다.(『聖祖仁皇帝聖訓』권5, 康熙五十六年十一月丙子 참고) 또한, 그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은 도리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원리를 알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셨는데, 참으로 다스림의 지극한 요체이다(孔子曰,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誠爲政之至要)"라고 하였다.(『聖祖仁皇帝庭訓格言』 참고) 또, 강남의 민간에서 사실상 수학과 과학(천문·역학 등의 여러 방면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수학을 가리킴)의 교육과 학습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그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완원(阮元)의 『주인전(疇人傳)』을 대표로 하는 몇 종의 "주인전(疇人傳)"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로 서원(書院)과 개인적인 전수를 위주로 하는 교육 방식은 강희제 시기의 관방(官方) 교육과는 그 범위 및 착안점이 모두 달랐다. 즉, 전자는 주로 유가경전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후자는 그 적용에 편중되어 있었다.

8) Jonathan D. Spence(吳根友 譯), 2001 『遠東海外中國學研究一史景遷系列』, 上海遠東出版社, 128면.

2

『고금도서집성』의 최종 인쇄가 끝난 때에 강희제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그는 이 책의 성취 혹은 효용에 대해 평가를 내린 바가 전혀 없다.[9] 그러나 강희제는 조정에서 주관하여 편찬한 유서(類書) 『연감류함(淵鑒類函)』에 서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배우는 사람이 혹 천하의 책을 모두 다 읽을 수 없다면, 이 책을 읽고서 그 대체적인 내용을 얻고, 이로써 그 시종의 조리와 정수가 있는 곳을 모두 구할 수 있으니, 이 책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적과 수사입성(修辭立誠)의 사업에 있어 이익이 됨이 경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즉, 유서를 만드는 것이 아마도 역시 성인의 입언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리라.[10]

여기에는 그가 유서라는 공구서의 효용에 대해 지녔던 인식의 깊이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는 유서가 "성인의 입언의 뜻에 어긋나지 않(不違于聖人立言之意)"아야 한다고 여겼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실 유서의 편찬 역시 조정의 뜻에 따라야 하며 조정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11]

『고금도서집성』은 강희제 만년에 완성된 거질의 유서로서 만권의 분량을 지녔으며 이 시기에 가장 높은 명성을 누린 학술성과이다. 이 책의 권 앞 옹정(雍正) 황제의 어제 서문에서 "(이 책)은 책부(冊府)의 장관을 이루었으며 도서 완비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하고, 또 "이 책은 또한 바다처럼 넓고 땅처럼 두터우며 경사(經史)와 제자백가를 집대성했다. 이보다 앞선 책들은 미비한 점들이 있었지만, 후에

---

9) 혹시 일찍이 약간의 견해를 발표한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미 관련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책의 편찬은 본래 강희제의 셋째 아들 윤지(允祉)가 부친의 뜻에 영합함으로써 자신이 태자 지위를 쟁탈하기 위한 승부수 한 가지를 더하려는 것이었으며[이러한 설은 졸고 「『古今圖書集成』的編纂成書及其所用銅活字問題研究」(간행 예정)에서 다루었음], 따라서 이 책의 수록 범위 및 원칙은 완전히 강희제 본인의 애호를 기준으로 삼았음이 분명하다.

10) 『淵鑒類函』 卷前(文淵閣 『四庫全書』本), "學者或未能盡讀天下之書, 觀於此而得其大凡, 因以求盡其始終條理精義之所存, 其於格物致知之功, 修辭立誠之事, 爲益匪淺鮮矣. 然則類書之作, 其亦不違于聖人立言之意與!"

11) 비록 일반적으로 "성인(聖人)"이라는 단어는 공맹 등의 선현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맥락에서는 그것을 조정 혹은 황제를 대신하는 말로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다가 고대 중국에는 본래 성인이라는 말로 황제를 지칭하는 전통이 있다. 더욱이 강희제가 자신을 성인으로 여겼음은 주지의 사실이니, 더 이상 불필요하게 증명하지 않겠다.

책을 만드는 자가 또 무슨 내용을 덧붙이겠는가!"[12]라 한 것에 근거하여 당시 이 책에 부여했던 기대를 살펴볼 수 있다.

서문의 평가가 이와 같다면, 『고금도서집성』은 본래 다방면에 있어서 당대의 특징적 학문을 심도 있게 체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책을 상세히 고찰해 보면, 의외로 이 책에 반영된 특징적 학술의 비중이 당시에 실제로 드러났던 것과 간극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된 까닭은 강희제 자신의 태도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13]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강희제의 셋째 아들 윤지(允祉)가 전력을 다해 『고서도서집성』 완성에 협력하였다는 배경과 관련시켜 본다면, 그로부터 강희 말년의 조정의 학술 발전의 경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송사(宋史)』권68 「율력지 일(律曆志一)」에서 "옛날에 제왕이 천하를 다스림에 율력을 우선으로 하였고, 유자가 하늘과 사람에 통함에 율력에 이르러 그쳤다. 역(曆)은 수(數)에서 비롯되고, 수는 율(律)에서 생겨난다.(古者帝王治天下, 律曆爲先, 儒者之通天人, 至律曆而止. 曆以數始, 數自律生.)"고 하였다. 율력은 줄곧 통치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게다가 강희제의 유년시절의 경험도 다소 영향을 끼쳐[14] 강희제 시대의 율력에 대한 중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5]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고금도서집성』에 반영된 것은 다만 강희제 전기의 성

12) 『古今圖書集成』卷前(1985, 中華書局·巴蜀書社影印本), "(此書)成册府之鉅觀, 極圖書之大備.", "是書亦海涵地負, 集經史諸子百家之大成. 前乎此者, 有所未備, 後有作者, 又何以加焉!"

13) 그러나 어찬 『연감류함』에 이러한 특징적 학술을 기록하지 않은 원인은 오히려 이와는 무관한데, 이는 이 책의 편찬 목적이 『고금도서집성』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강희제의 언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강희 33년 5월 갑인(甲寅)일에 "한림원에 조서를 내려, '짐이 서적을 두루 열람하다가 여러 책을 분류한 것에 비록 각각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당류함(唐類函)』은 상세하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역시 당(唐) 이후의 전고와 예문을 채록하지 않았다. 『당류함』의 체제를 따라 당으로부터 명대까지 책을 완성하여 독서의 자료로 제공토록 하라'고 하였다.(上諭翰林院: 朕流覽載籍, 見分類諸書雖各有所長, 尚多未備. 『唐類函』 可謂詳贍, 然唐以後典故藝文, 亦未採錄. 可依『唐類函』體例, 自唐迄明, 輯成完書, 以資觀覽.)"고 한 것에 근거하면, 『연감류함』의 편찬은 주로 문장과 자구를 채록하고 예문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 『聖祖仁皇帝庭訓格言』제181조 "너희들은 짐이 산술에 정밀하다는 것만 알 뿐이지, 짐이 산술을 배우게 된 까닭은 모른다. 짐이 어렸을 때에 흠천감(欽天監)의 한인 관리와 서양인이 불목하여 서로 탄핵하여 거의 사형에 이를 뻔하였다. 양광선(楊光先, 흠천감 監正)과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2~1666)이 오참(午站) 밖에서 구경(九卿)들이 보는 앞에서 해 그림자를 관측하는데, 구경 가운데 그 방법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짐이 생각건대 자신이 모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스스로 발분하여 배웠노라.(爾等惟知朕算術之精, 卻不知朕學算術之故. 朕幼時, 欽天監漢官與西洋人不睦, 互相參劾, 幾至大辟. 楊光先、湯若望於午站外九卿前當面賭測日影, 奈九卿中無一知其法者. 朕思己不知, 焉能斷人之是非？因自憤而學焉.)"

15) 『聖祖仁皇帝聖訓』권5, 강희 50년 10월 신미(辛未), "대학사(大學士) 등에게 조서를 내려 말씀하시길, 천문과 역법은 짐이 평소에 관심을 갖는 바라고 하셨다.(上諭大學士等曰: 天文曆法朕素留心.)"

과에 그치며, 강희 22년 후의 율력 방면 연구의 진전에 대해서는 어떤 기재도 없다. 그러나 『역상휘편(曆象彙編) · 역법전(曆法典)』제50권 「역법총부휘고(曆法總部彙考)」제50에 수록된 강희제 시대의 내용이 겨우 10칙에 불과하며 시기적으로도 단지 강희 22년까지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매우 상징적 의의를 내포한다.

예를 들면, 그중 강희 7년 조에 "『대청회전』 강희 7년, 대신에게 명령을 전하여 서양인을 소집하여 본감관(本監官)의 질의 변론에 참여할 것을 명하였으며, 다시 예부당관(禮部堂官)에 명하여 서양인과 오문(午門)에서 정오에 해 그림자를 관측하도록 명하였다."[16]고 기재하였고, 또한 강희 8년 조에 "또한 특별히 대신 20명을 관상대에 파견하여 관측하도록 하고, 마침내 서양인에게 역법을 다스리도록 명하였다."[17]고 하였다. 이 두 조의 기재 내용은 강희제가 그 해에 율력을 학습하기 시작한 계기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역상휘편 · 역법전』의 제51권에서 제72권까지, 제77권 · 제78권 · 제79권, 제85권에서 제88권까지, 제103권에서 제107권까지의 수록 내용은 게르만 선교사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2~1666)이 순치(順治) 2년에 올린 『신법역서(新法曆書)』와 그 부록인 『역법서전(曆法西傳)』 · 『신법역인(新法曆引)』 · 『신법표이(新法表異)』 등의 책이다. 이 책은 숭정(崇禎) 말년의 『숭정역서(崇禎曆書)』와 비교하면 비록 조금 삭제하거나 고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수를 계승하였다. 아담 샬의 이 책이 편찬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조정에서 유럽 천문학 이론을 받아들여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책은 당시 서양의 천문학을 가장 전면적으로 소개 · 도입한 가장 주요한 저작으로서 그 후 편찬된 『율력연원(律曆淵源)』에 수록된 『역상고성(曆象考成)』 등은 바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역상휘편 · 역법전』의 제89권에서 제95권까지는 벨기에 선교사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南懷仁, 1623~1688)의 『영대의상지(靈臺儀象志)』이다. 이 책은 서양 근대 초기의 물리학 지식, 광학 지식 및 기상학과 열학 지식 등을 비교적 많이 언급하였고, 상당한 분량에서 서양의 천문의기(天文儀器) 등을 소개하였다. 비록 여전히 명말 『숭정역서』의 체계 안에 국한되어 있지만 『고금도서집성』에 이 책을 수록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학술 취향을 설명해 준다.

이밖에 『고금도서집성』의 이 부분에는 『주비산경(周髀算經)』 · 『수술기유(數術記遺)』 · 사찰미(謝察微)의 『산경(算經)』 · 『몽계필담(夢溪筆談)』 · 『산법통종(算法統宗)』

16) "『大清會典』 康熙七年, 命大臣傳集西洋人及本監官質辯, 復令禮部堂官與西洋人至午門測驗正午日影." 3429면.

17) "又特遣大臣二十員於觀象臺測驗, 遂令西洋人治理曆法."

등 고대 전통 산서(算書)를 수록하였는데, 이 역시 이 시기 산학을 중시했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비록 당시에 실제로 강구했던, 더욱 선진적이며 유럽의 산학 발전 수준을 대표하는 최신 성과, 이를 테면 『수리정온(數理精蘊)』에 수록된 『기하원본(幾何原本)』·『산법원본(算法原本)』 등은 『고금도서집성』에 실리지 않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강희제의 이러한 지식에 대한 인식을 설명해준다. 즉, 그는 다만 이러한 지식을 자신의 취미로 삼는 데에 만족하고 그러한 지식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다른 사람의 시비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이지, 그것이 국가 전체의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강희 말년의 지리학에 있어 가장 탁월한 성취는 의심할 바 없이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의 편찬이다. 강희제 자신도 실제로 이러한 성과를 상당히 중시하여, 일찍이 "내각학사 장정석(蔣廷錫)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길, 『황여전도(皇輿全圖)』는 짐이 30여 년 동안 마음과 공력을 들여 비로소 완성한 것으로, 산맥과 물길이 모두 『우공(禹貢)』에 부합한다. 그대는 이 전도(全圖) 및 각 성(省)을 나누어 그린 지도를 구경(九卿)들과 자세히 살피고, 만약 맞지 않는 곳이 있다면, 구경 가운데 아는 사람이 즉시 지적하고, 본 후에 면전에서 아뢰도록 하라."[18]고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 목적은 이 지도가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지도의 제작은 강희 46년에 시작되어 강희 57년에 완료되었으며,[19] 당시 지도 측회학(測繪學)의 세계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 우수함은 조셉 니담(Joseph Terence Montgomery Needham: 李約瑟, 1900~1995)이 "그것은 아시아에 있던 당시의 모든 지도 가운데 최고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럽 지도보다도 더 훌륭하고 정확하다."[20]고 평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혁혁한 성취를 『고금도서집성』에는 명확히 싣지 않았으니, 『방여휘편(方輿彙編)·곤여전(坤輿典)』제3권에 여전히 페르비스트의 『곤여도설(坤輿圖說)』만 수록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곤여도설(坤輿圖說)』은 같은 해 판각된 『곤여전도(坤輿全圖)』를 해설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권71에 따르면 "이 책의 상권에서는 곤여에서 인물까지 열다섯 조로 나누어 모두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였다. 하권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의 도로·산천·풍속·물산을 수록하였는데, 오대

18) 『聖祖仁皇帝聖訓』권5, 강희 58년 2월 을묘(乙卯): "上諭內閣學士蔣廷錫曰, 『皇輿全圖』, 朕費三十餘年心力始得告成, 山脈水道俱與 『禹貢』 相合. 爾將此全圖并分省之圖與九卿細看, 倘有不合之處, 九卿有知者, 即便指出, 看過後面奏."

19) 이 기간은 이 지도가 실제로 측정 및 제작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20) 『中國科學技術史』(*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제5권 제1책(1976), 科學出版社, 235면.

주로 나누고 마지막에는 서양칠기(西洋七奇)를 다루었다. 『곤여도설』은 대체로 알레니(Giulios Aleni: 艾儒略, 1582~1649)의 『직방외기(職方外紀)』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간혹 상세하고 소략함에 차이가 있다."[21]고 하였다. 그중에 포함된 지리지식의 깊이와 정확성은 분명 『황여전람도』가 도달한 수준과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다.

또한, 『곤여전(坤輿典)』의 제103권 『여도부휘고(輿圖部彙考)』권43에서 권61까지는 상고시대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지도 관련 문헌을 수록했는데, 사실 명대 부분의 문헌이라도 대체로 역시 완전히 수록하지 않았다. 이 점은 그 표목이 "명일(明一)"에서 그치고 그 뒤를 잇는 표목이 없다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것으로 청대의 성과까지 반영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일체의 사실은 모두 『고금도서집성』이 해당 영역의 성과를 수록할 때의 한계를 설명하는 듯하다. 그러나 『고금도서집성』을 상세히 살펴보면 『황여전람도』의 성과가 이 책에 사실 어느 정도 체현된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황여전람도』의 전도 및 각 행정구의 216폭의 지도가 모두 기존의 경위선(經緯線)이 삭제되고 서학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제거된 후에, 『방여휘편 · 직방전(職方典)』에 수록된 각 행정구의 앞에 보존되어 있는 점이 그러하다. 이렇게 사실상 황가(皇家)의 최신 성과를 받아들이면서도 함부로 널리 알리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강희제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일 것이다.[22]

강희제 시대와 그 자손의 통치시기에 조정에서 시종일관 주력하여 제창하고 관방(官方) 철학으로 떠받든 것은 송명 이학(理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23] 강희제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

21) "是書上卷, 自坤輿至人物分十五條, 皆言地之所生. 下卷載海外諸國道里、山川、民風、物産, 分爲五大州, 而終之以西洋七奇. 『圖說』 大致與艾儒畧 『職方外紀』 互相出入, 而亦時有詳畧異同." 文淵閣 『四庫全書』 本.

22) 일반적으로 어제도서를 인용할 때에는 설령 특별히 널리 알리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전적을 인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출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고금도서집성』은 인용한 여러 책들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부분에서 모두 그 출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인용한 이러한 지도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밝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편자가 고의로 그 출처를 감추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만 설명될 수 있다.

23) 예를 들어, 청조의 종실인 소련(昭槤)의 『소정잡록(嘯亭雜錄)』권1 "숭리학(崇理學)"에서 "(강희제 시대) 송학이 발달하여, 세상에 순유(醇儒)와 학문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풍속이 순후해졌으니, 후대에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康熙時期) 宋學昌明, 世多醇儒耆學, 風俗醇厚, 非後所能及也.)"고 하였다. 또한 건륭제(乾隆帝)의 『청고종어제문초집(淸高宗御製文初集)』권16 『문묘비문(文廟碑文)』에서 "지극한 도를 숭상하고, 정치와 교화를 펼쳐 백성들을 선량하게 하며, 선조를 본받고 스승을 높이 받들어, 널리 나라 안팎으로 함께 성인의 은택을 입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짐의 뜻이다.(欽崇至道, 敷政教以淑群黎, 法祖隆師, 俾溥海內外無一夫不與被聖人之澤, 朕志也.)"라고 하였다.

"학문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데에 있을 따름이다. 천리는 곧 본연의 선이며 태어난 처음에 하늘이 부여한 바이다. 인욕은 태어난 후에 기품이 편벽되어 외물에 동요되고 감정을 마음대로 좇는 것으로, 사람이 하는 바이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념을 막아 성(誠)을 보존하는 것이 천리를 지켜서 기르고 인욕을 막는 방법이다. 성찰하고 극치(克治)하는 것은 천리를 분명히 변별하고 인욕을 결연히 제거하는 방법이다. 만약 마음을 보존하고 함양하는 것을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다면, 천리는 항상 보존되고 물욕은 모두 제거될 것이다."[24]

또한, 『성조인황제실록(聖祖仁皇帝實錄)』 수록 내용에 근거하면, 강희제는 "오직 송의 유학자 주자만이 여러 경전에 주석을 달고 도리를 상세히 밝혔으며, 여러 저작 및 편찬한 책들이 모두 명백하고 정밀하여 대중지정(大中至正)으로 돌아갔다. 지금 오백 여년이 지나도 학자들 가운데 감히 비난하는 자가 없으니, 짐은 공맹 이후로 사문에 보탬을 준 자들 가운데 주자의 공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노라."[25] 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 내용으로부터 강희제의 사상 경향과 추숭의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강희제 시대에 통치 수단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서 송명 이학이라는 학문은 전파와 보급에 있어 앞서 논했던 과학의 신지식과 같이 저지를 당했던 적이 없다. 저지를 당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전력을 다하여 제창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금도서집성』에서도 실증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학휘편(理學彙編)·학행전(學行典)』에 『주자통서(周子通書)』·『장자정몽(張子正蒙)』·『근사록(近思錄)』·『주자전서(朱子全書)』·『성리대전(性理大全)』·소자(邵子)의 『황극경세(皇極經世)』·『주자대전서(朱子大全書)』 등 이학 방면의 방대한 저작 가운데 일부를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지식을 어느 범위 내로 전파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 강희제의 분별력은 매우 뛰어났으며, 그의 아들 윤지와 진몽뢰(陳夢雷) 등 신하들

24) 『聖祖仁皇帝庭訓格言』, "學問無他, 惟在存天理, 去人欲而已. 天理乃本然之善, 有生之初, 天之所賦畀也. 人欲是有生之後, 因氣稟之偏, 動於物, 縱於情, 乃人之所爲, 非人之固有也. 是故閑邪存誠, 所以持養天理, 隄防人欲. 省察克治, 所以辨明天理, 決去人欲. 若能操存涵養, 愈精愈密, 則天理常存而物欲盡去矣." 예를 더 들자면, 강희 12년 9월 갑술(甲戌)에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도리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본령이며, 수기치인(修己治人)해야 비로소 주재(主宰)가 있게 된다. 만약 이(理)에 밝지 않다면 일체의 일들을 처리함에 어디에서 원칙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셨으며 또한, 교유하시길, '학문의 도는 필경 바른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셨다.(『聖祖仁皇帝聖訓』권5, 文淵閣 『四庫全書』本, 上曰: 講明道理, 乃爲學切要功夫, 修己治人, 方有主宰. 若未明理, 一切事務於何取則? 又諭曰:學問之道, 畢竟以正心爲本.)"고 하였다.

25) 『聖祖仁皇帝實錄』권249, 강희 51년, "惟宋儒朱子, 注釋群經, 闡發道理, 凡所著作及編纂之書, 皆明白精確, 歸於大中至正. 經今五百餘年, 學者無敢疵議. 朕以爲孔孟之後, 有裨斯文者, 朱子之功最爲弘巨."

역시 이 점을 깊이 이해하였기 때문에 결코 이를 거역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금도서집성』의 편자는 강희제가 보급을 제한하고자 했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범한 학술적 안목을 드러내었는데, 예를 들어 자서(字書) 등의 수록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물론 자학(字學) 역시 사실 강희제가 관심을 가진 학문 분야였다. 그는 일찍이 『강희자전(康熙字典)』의 편찬 취지를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짐은 어려서부터 전적에 관심을 가졌고, 근년 들어 편정한 책이 대략 수십 종이 되는데 모두 이미 차례대로 완성되었다. 자학에 있어서는 관심이 더욱 깊다. 『자휘(字彙)』는 지나치게 간략하고, 『정자통(正字通)』은 넘칠 정도로 너무 많다. 또, 각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고 말소리도 각각 다르다. 사마광(司馬光)의 『유편(類篇)』은 부분적으로 간혹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심약(沈約)의 성운(聲韻)은 후대 사람 중에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홍무정운(洪武正韻)』은 논박을 당하는 부분이 많아 결국 널리 퍼지지 않았고, 또한 심약의 운에 의거하고 있다. 짐은 제가들의 견해를 참조하여 힘써 연구하고 고증하였다. 우리 청조의 만주 문자 및 몽고·서역·해외 여러 나라의 문자의 경우 대개 자모(字母)를 따라서 만들어졌다. 발음은 비록 지역 마다 다르더라도 글자는 모두 점과 획으로 구성된다. 두 글자가 합쳐져 한 글자가 되고 두 음운을 반절하여 하나의 음이 된다. 이로부터 천지의 모음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오고 목소리의 형상을 글씨의 모양에 깃들였음을 알 수 있다. 고로 짐은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책 한 권을 편정하여 『강희자전』이라 명명하였다. 『자휘』가 빠뜨린 내용을 더하고 『정자통』의 번잡함을 삭제하여 힘써 상세함과 간략함 사이의 중용을 얻고 지당함에 귀의하여 영구히 전해져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노라.[26]

그리고 아마도 강희제가 자학에 대해 가졌던 바로 이와 같은 관심을 기반으로 『고금도서집성』에서 이전 수백 년 동안 묻혀버린 지 오래인 일련의 자서들을 적잖이 수록하게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학휘편 · 자학전(字學典)』의 제11권에서 시작하여 제35권까지, 또 제37권에서 제41권까지, 서른 권의 편폭에 각각 『이아(爾雅)』(석고釋詁 · 석언釋言 · 석훈釋訓 부분) · 『방언(方言)』(잡석雜釋) · 『설문해자(說文解字)』 · 『박아(博雅)』(석고 · 석언 · 석훈 · 석친釋親 · 석실釋室 · 석기釋器 부분) · 『간

---

26) 『聖祖仁皇帝庭訓格言』, "朕自幼留心典籍, 比年以來所編定書約有數十種, 皆已次第告成. 至於字學, 所關尤切. 『字彙』 失之簡略, 『正字通』 涉於氾濫. 兼之各方風土不同, 語音各異. 司馬光之 『類篇』, 分部或有未明. 沈約之聲韻, 後人無不訾議. 『洪武正韻』, 多所駁辯, 迄不能行, 仍依沈韻. 朕參閱諸家, 究心考證. 如我朝清文, 以及蒙古、西域、洋外諸國, 多從字母而來. 音雖由地而殊, 而字莫不寄於點畫. 兩字合作一字, 二韻切爲一音. 因知天地之母音發於人聲, 人聲之形象寄於字體. 故朕酌訂一書, 命曰 『康熙字典』, 增 『字彙』 之闕遺, 刪 『正字通』 之繁冗, 務使詳略得中, 歸於至當, 庶可垂示永久云."

록자서(干祿字書)』·『패휴(佩觿)』·『육서정와(六書正訛)』등의 책을 수록하였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은 후에 청대 학자들이 군기(群起)하여 몰려들어 연구하면서 당대의 주요 학파를 이루었던 『설문해자』 역시 『고금도서집성』의 수록 범위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비록 명·청 교체기에 방이지(方以智)의 『통아(通雅)』와 왕부지(王夫之)의 『설문광의(說文廣義)』가 나왔고, 고염무(顧炎武) 등이 『설문해자』를 연구하고 추숭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는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설문해자』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약한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또한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고금도서집성』 편자의 학술적 안목은 이 책이 과거의 지식을 총결하여 당시 집대성된 학술 분야의 총집합을 이룰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학술의 발전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학술의 경로를 개척하여 장래 학술 발전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3

상술한 바와 같이, 『고금도서집성』은 강희 말년에 탄생한 저작으로서 의심할 바 없이 강희제 시대의 각인을 많이 남기고 있으며, 당시의 학술 성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의 기록과 관련 서술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희제 자신의 취향 등의 원인으로 인해, 사실상 이 책에는 당대의 학술 동향이 결코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강희제 시대의 진정으로 특징적인 학술에 속하는 서학 방면에 있어서 『고금도서집성』의 기록은 심각하게 뒤쳐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강희제가 적극적으로 제창한 송명 이학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여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전제시대에 제왕 한 사람의 취향이 전체 사회의 학술 발전에 영향을 끼쳤던 데에서 비롯된 올바르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점을 제외한다면 이 책에 수록된 일련의 문헌은 상당한 선견지명을 갖추고 있어, 후대의 학술 발전에 지향점을 알려주는 작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문·역법·수학 등과 같이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학문 분야이든, 편자가 뛰어난 안목을 갖추었기에 수록될 수 있었던 문자음운학이든, 비록 민간 학자의 학술 시야에서 사라진 적은 없지만 진정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기까지는 18세기 후반 건륭제 시대까지 더 기다려야만 했다. 이처럼 한 세기에 걸쳐 삼대(三代)의 제왕의 통치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학술은 사실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천문 · 산학 · 지리학 방면에서는 큰 폭으로 퇴보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제자리 걸음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전제시대에 학술이 통치의 예속물이었기에 발생한 그릇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 : 윤지양)

주제어 : 강희제, 『고금도서집성』, 송명 이학, 서양 과학

접수일(2012. 2. 7), 심사시작일(2012. 2. 28), 게재확정일(2012. 3. 12)

〈Abstract〉

The academy in the reign of Emperor K'ang-Hsi and *Gujintushu jicheng*(古今圖書集成)

Liu, Xiang-chun *

This article analysis the academic feature of *Gujintushu jicheng*(古今圖書集成) which compiled and published in the period of Emperor K'ang-Hsi, also look through the influence on Qing society that present. It wa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that is comprehensive in its coverage of current book of Zhuzixue, and neglect the western learning. The aspect of this book had some connection with his personal taste.

Although Emperor K'ang-Hsi had great influence on nation and development of Qing culture, he did'nt enlarged the his loving western science - astronomy, mathematics, geography into nation and people. So, he was a responsibility to lower advance of scientific knowledge in his reign.

Key Words : *Gujintushu jicheng*(古今圖書集成), Emperor K'ang-Hsi, Zhuzixue, western learning

* Shanghai Museum Min Chiu Library Research Fellow.